

## 제 2 차 世界大戰時의 蘇聯外交와 韓國問題

金 學 俊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커다란 戰略的 決定들 |
| II. 獨蘇開戰과 大聯合의 形成 | V. 蘇聯이 帝國을 인다.  |
| III. 戰時外交의 本質     |                 |

### I. 머 리 말

제 2 차 世界大戰이 國際政治 전반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고 다각적이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그것은 당시의 歐美 列強 모두에게,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 편재해 있던 歐美의 植民地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國家의 하나가 蘇聯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제 2 차 世界大戰이 발발할 可能性이 높아가던 1930年代 말에 蘇聯은 자신의 生存을 위해서 이념적으로는 不相容의 관계에 있던 나찌 獨逸과 손을 잡았다. 1939년 8월 蘇聯은 세계를 놀라게 한 獨逸과의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했던 것이다. 스탈린이 이 協定으로써 蘇聯의 安全이 보장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1941년 6월 獨逸이 蘇聯과의 相互不可侵協定을 파기하고 蘇聯에 대한 武力侵攻을 개시하자 스탈린의 幻想은 깨어졌다. 蘇聯은 이제 히틀러의 막강한 軍事力 앞에서 生과 死의 岐路에 서게 된 것이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당시 스탈린은 「테닌이 이룩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잃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sup>(1)</sup> 스탈린이 蘇聯의 終末이 닥쳐 왔다고 생각할 정도의 커다란 危機에 蘇聯은 빠졌던 것이다. 蘇聯 當局이 편찬한 『蘇聯外交政策史』의 다음과 같은 表現도 蘇聯이 나찌의 侵略을 蘇聯의 安保에 대한

(1) 1956년에 있었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 演說에서. Richard F. Rosser, *An Introduction to Soviet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9), p. 199.

대단히 중요한 威脅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나찌 獨逸과 그의 同盟者들이 蘇聯을 침공하자마자, 戰爭은 무엇보다 가장 침략적인 帝國主義 勢力이 世界 最初の 社會主義 國家인 蘇聯을 파괴하고 예측시키려는 戰爭이 되었다. 蘇聯에게 그것은 蘇聯의 國家利益과 그리고 蘇聯 人民 및 많은 다른 人民들의 自由와 獨立을 수호하는 鬭爭이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社會主義體制의 誕生을 가져온 위대한 10월 社會主義革命의 成果를 수호하는 鬭爭이었다. 그것은 社會主義에 반대하여 일어난 帝國主義 가운데서도 가장 호전적인 勢力에 대항하는 戰爭이었다. (2)

이같은 死活的인 危機에 직면하여 蘇聯은 美國 및 英國과 이른바 大聯合 (Grand Alliance)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2차 大戰은 나찌 獨逸을 중심한 軸國 대 大聯合의 對決로 변모한 것이다.

蘇聯은 자신이 2차 大戰에 참가하여 나찌 獨逸에 맞섰던 4년(1941~1945)간의 戰爭을 「위대한 愛國戰爭」 ("the great patriotic war")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위대한 愛國戰爭」의 期間에 蘇聯은 2백개 이상의 獨逸 師團과 직접적으로 대결해 막대한 犧牲者를 내었다. 蘇聯의 計算에 따르면——이 計算은 美國에서도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2차 大戰 중 戰死者가 美軍 1명에 蘇軍 50명의 比率이었다. (3) 그러나 蘇聯軍의 엄청난 犧牲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蘇聯은 이를 외교적으로 십분 활용하여 戰時 聯合國會談에서 상당한 補償을 받아내었다. 戰後處理問題를 다루는 이 일련의 會談에서 蘇聯은 유럽 戰線에서의 자신의 「功勞」를 내세워 聯合國으로부터 많은 讓步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련의 戰時 聯合國會談이야말로 戰後의 國際秩序를 결정한 張本人이었다. 戰時의 美·蘇 兩極體제도 그 始源이 여기에 있으며, 이른바 「冷戰의 起源」도 여기서부터 찾아지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참으로 많은 國家와 民族의 運命이 聯合國의 首腦들과 그 補佐官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2) B. Ponomaryov, A. Gromyko, and V. Khvostov (eds.), *History of Soviet Foreign Policy: 1945-197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3), trans. by David Skvirsky and published by Progress Publishers, 1974, p. 9.

(3) John Lewis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 Interpretive Histor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p. 154.

韓民族도 例外가 아니어서, 韓半島의 分斷으로 비롯되는 民族的 悲運이 대체로 이들 會談의 決定이나 諒解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러한 背景에서 本稿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대한 解答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2차 大戰 중의, 더 좁혀 말해 「위대한 愛國戰爭」期의 蘇聯外交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蘇聯을 포함한 聯合國 會談에서 韓國問題는 어떻게 다뤄졌는가? 특히 蘇聯의 態度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 II. 獨·蘇開戰과 大聯合의 形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찌 獨逸軍의 蘇聯 侵攻은 蘇聯을 滅亡의 一步 直前으로까지 몰고 갔다. 1941년 6월 22일 蘇聯 國境을 넘어선 獨逸軍은 불과 몇 개월 이내에 蘇聯의 心臟部를 강타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해 11월에는 모스크바의 近郊로까지 진군하였다. 이것은 蘇聯 國民의 40%가 살고 있는 蘇聯 領土가 獨逸軍에 의해 점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獨逸軍의 신속한 進攻 앞에서 스탈린은 「민족적 團結」을 호소하였다. 1941년 7월 3일 스탈린은 『잔인하고 결코 화해할 수 없는 敵이 우리의 이마의 땀에 젖어진 땅을 빼앗아, 地主와 짜리즘의 支配를 복구시키고, 蘇聯 人民을 獨逸化하고자 한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이 戰爭은 평상적인 戰爭이 아니라 『獨逸 파시스트 勢力에 반대하는 全體 蘇聯 人民의 위대한 愛國戰爭』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이 戰爭이 소비에트 國家와 蘇聯 人民에게는 死活이 걸린 戰爭이라는 表現으로써 蘇聯 國民의 警覺心을 불러일으킨 한편, 그러나 히틀러의 侵略軍도 패퇴될 것이라는 確信을 심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러시아를 침공한 「天下無敵」의 나폴레옹이 결국 쿠투조프(Kutuzov) 將軍에 의해 패퇴되었듯, 히틀러의 軍隊 역시 蘇聯 人民에 의해 축출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 것이다.<sup>(4)</sup> 이와 동시에 그는 焦土作戰을 내렸다.

그러나 焦土作戰만으로 獨逸軍의 進擊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西歐 資本主義의 最後의 堡壘」로부터의, 즉 美國과 英國으로부터의 支援이 있어야만 하였다. 히틀러의 蘇聯侵攻이 있기 이전에는 蘇聯과 西歐는 단결하지 못

(4) 스탈린의 이 放送演說의 拔萃는 다음에 있다. Alvin Z. Rubinstein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pp. 165-166.

했었다. 그러나 共同的 敵 앞에서 지난 날의 反目과 不信은 이제 덮어두지 않을 수 없었다.

蘇聯에 대한 支援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나라는 英國이었다. 獨逸의 蘇聯 侵攻이 시작된 6월 22일 저녁 처칠 首相은 英國 國民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지난 25년간 本人처럼 共產主義에 대해 一貫性 있게 반대해온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비참한 광경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英國 政府는 히틀러와 나찌 政權의 모든 찌꺼기의 파괴라는 단 하나의 目標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단언하고 『나찌 體制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경우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國家도 우리의 支援을 받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理由는 명백했다. 처칠 首相이 보는 바로는 히틀러의 蘇聯 侵攻은 英國 侵攻의 前奏曲이기 때문이었다.<sup>(5)</sup> 이에 따라 英國과 蘇聯은 7월 12일 相互 援助 協定을 체결했다.

英國의 신속한 行動에 비해, 美國의 對應은 훨씬 늦었다. 美國은 蘇聯의 敗北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루즈벨트 大統領의 密使인 흠킨스(Harry Hopkins)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에야 美國 官邊의 態度에는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對空砲와 알미늄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3~4년 동안 싸울 수 있다』는 스탈린의 呼訴에 美國 政府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스탈린은 美陸軍의 완전한 指揮下에 美軍이 蘇聯戰線 어느 곳에라도 주둔해도 좋으니 신속히 파병해 달라고 루즈벨트 大統領에게 거듭 호소하였다. 그 해 9월에 그는 처칠 首相에 대해서도 25개 내지 30개 英國 師團이 蘇聯 領土內에 들어와 싸워 줄 것을 요청하였다. 蘇聯의 政治指導者가 이러한 要請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1941년 9월 말 美國의 武器貸與法 擔當官 해리먼(W. Averell Harriman)과 英國의 調達相 비버브루크卿(Lord Beaverbrook)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하고, 10월 1일 秘密議定書에 서명했다. 여기서 美·英은 蘇聯에게 탱크로부터 軍艦에 이르는 1백 50여종의 武器 및 裝備의 공급을 약속했다. 英國도 美國의 援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만큼, 對蘇援助의 대부분을 美國이 감당하기로 결정했다. 10월 30일 루즈벨트 大統領은 武器貸與法의 規程 아래서 美國이 蘇聯에게 10억달러의 借款을 無利子로 공여하겠다는 뜻을 스탈린

(5) Rosser, *An Introduction to Soviet Foreign Policy*, p. 199. 本稿에서 특별한 出處를 밝히지 않는 한, 그 기본적 資料는 이 책의 제 7 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에게 전달했다(終戰까지 美國은 蘇聯에게 약 90억달러의 物品을 공급했다).

1941년 12월 7일 日本은 美國의 眞珠灣을 공격했다. 이어 12월 10일에는 獨逸이 美國에 대해 宣戰을 포고했다. 이에 따라 美國은 英國과 蘇聯에 이어 「反파시스트 聯合에 있어서 제 3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42년 1월 1일 美國과 英國 및 蘇聯은 各國이 獨逸에 대한 勝利를 성취할 때까지 함께 싸운다는 것을 다짐하는 國際聯合宣言을 발표했다. 이로써 처칠의 用語로 大聯合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大聯合은 대단히 취약한 構造 위 에 서 있었다. 세 파트너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꺼이 이 大聯合에 가담하지 않았었다. 스탈린은 西歐列強間의 葛藤에 개입되지 않고자 最善을 다 했었다. 共同的 敵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단결하는 길 밖에 없다는 利害判斷에서 그들은 일종의 政略結婚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되는 바와 같이 獨逸의 敗亡이 확실해지게 되자 大聯合에는 龜裂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 III. 戰時外交의 本質

확실히 蘇聯의 政策目標과 美國 및 英國의 政策目標 사이에는 커다란 間隔이 있었다. 美國과 英國 사이에도 때때로 상당한 정도의 異見이 드러났다. 이를 조정하면서 戰後의 世界秩序를 제편하려는 美·英·蘇 首腦會談이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1943년 11월의 테헤란會談과 1945년 2월의 얄타會談 및 1945년 7월의 포츠담會談이 그것이다. 다음에서 우선 大聯合의 首腦들이 추구한 정치적 目的이 무엇이었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스탈린의 정치적 目的

戰時 聯合國會談을 일관한 스탈린의 중심적 關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가 獨蘇不可侵協定の 期間 동안 획득했던 것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히틀러가 그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領土에 대한 支配權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蘇聯의 기본적 國家利益은 변화하지 않고 다만 스탈린의 協商對象者들만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스탈린이 協商的 對象으로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히틀러처럼 資本主義者들이었다. 이 「잠정적 친구들」 역시 「社會主義 母國」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敵對感을 결코 버

리지 않고 있다고 스탈린은 생각했다.

그러나 蘇聯의 國家利益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2차 大戰이 차차 聯合國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면서, 軸軸國의 領土와 그 植民地 또는 占領地는 聯合國의 戰利品으로서 分割의 對象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蘇聯의 膨脹欲求도 자극되어 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나찌 獨逸과 日本의 版圖가 「競賣」에 부쳐지게 될 可能性이 커지면서, 이에 참여하여 蘇聯의 勢力圈을 넓히려는 스탈린의 欲求도 강해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機會主義者인 스탈린은 자신에게 주어진 機會를 십분 활용하였다.

그러면 戰時外交에 입하는 스탈린의 基本적 接近方法의 特徵은 무엇이었나? 첫째, 그는 軍事戰略을 政治戰略에 종속시켰다. 레닌은 軍事力이란 정치적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共產主義者의 兵器庫에 있는 전체 武器 가운데 한 部分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스탈린은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단순한 군사적 勝利 이상의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다. 1941년과 같은 困境의 해에 있어서조차 그는 聯合國이 獨蘇不可侵協定으로부터 획득한 蘇聯의 새 領土를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그 한 例이다.

둘째, 스탈린은 자신의 영토적 欲求를 蘇聯의 합법적인 安保의 必要로서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努力을 기울였다. 보다 쉽게 표현하여, 스탈린은 蘇聯이 장차 「제2의 히틀러」로부터의 侵略可能性에 대해 安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蘇聯의 周邊國家들이 蘇聯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友好性」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政治體制가 소비에트體制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는 蘇聯의 支配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共產主義者의 代表를」(“Soviet domination internationally, and communist representation internally”)의미했다. 스탈린은 이 점을 알타會談과 포츠담會談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後者의 問題에 대해 포츠담會談에서 그는 東歐에서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政府가 수립되는 경우 그것은 『反소비에트의이 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탈린은 共產主義的 國際主義(communist internationalism)를 약화시켰다. 共產革命의 海外輸出을 강조하는 경우 그것은 大聯合의 團結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민테른은 占領地의 共產主義者들에게 現地の 民族부르조아와 제휴해서 抵抗運動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아니라 民主主義가 世界共產主義運動의 忠誠心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탈린은 1943년 5월 22일 코민테른을 해체했다. 이와 더불어 스탈린은 이로써 蘇聯이 다른 나라의 國內政治에 개입하여 마침내 그를 소비에트化하려고 한다는 히틀러의 「거짓말」은 더 이상 說得力이 없어졌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 무렵의 코민테른은 蘇聯共產黨 政治局과 外國共產黨 指導層을 잇는 連鎖로서의 名目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스탈린은 이 유명무실한 기관을 없애면서 西方에 대해 상당한 생색을 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스탈린이 반드시 西方에 생색을 내려는 의도에서만 코민테른을 해체한 것은 아니었다. 코민테른 解體의 背景에는 國內적 요인도 있었다. 蘇聯內部에 있어서 民族主義의 勃興이 그것이다. 게르만의 侵略 앞에서 러시아인의 民族主義는 크게 자극되었는데, 이것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關心을 크게 저하시킨 結果를 가져왔다.

外勢의 侵略을 받은 나라에서 民族主義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蘇聯의 경우에는 그것이 스탈린의 政治적 計算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억압적인 共產政權보다 「母國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칠 決意가 더욱 클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나찌의 잔인성을 직접 맛보기까지는 나찌軍을 환영했다). 그러므로 그는 러시아인의 기억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聖人과 英雄 또는 思想家와 文人의 이름으로써 러시아 民族主義를 일깨우고자 했다. 예컨대 獨逸軍이 1941년 11월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 오자,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위대한 러시아 國家——플레카노프와 레닌의, 벨린스키와 체르니셰프스키의, 푸슈킨과 톨스토이의, 고르키의, 체호프의, 글린카와 차이코프스키의, 세체노프와 파블로프의, 수보로프와 쿠트조프의 國家를 절멸시키겠다고 뻔뻔스럽게 호언하는, 야수의 도덕성을 가진 이 게르만인들에 맞서 싸우자!』 『獨逸 侵略者들에게 죽음을!』이 스탈린의 口號였다. 이것은 『赤軍은 獨逸 勞動階級の 兄弟들과 友愛로써 단결해야 한다』는 1917년의 口號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民族主義에 대한 呼訴의 線에서 멈추지 않았다. 軍部の 忠誠心을 확보하고 軍組織의 效率性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措施를 취하였다.

軍將校에게는 1917년의 혁명과 더불어 「반봉적 身分制」의 하나로 규정되어 금지됐던 견장의 사용을 허용했고, 軍의 不滿對象인 政治將校制度를 폐지했으며, 스탈린 스스로 陸軍 元帥職을 담당했다. 信仰心 깊은 러시아인들에 대한 配慮로서 1943년 9월에는 러시아正敎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기조차 하였다.

스탈린의 이러한 措施들은 일부 學者들로 하여금 스탈린이 共產主義를 버리고 民族主義를 선택했다는 判斷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短見이었다. 그는 상황적 要求에 따라 共產主義의인 語調를 낮추고 右派主義의·保守主義的 政策을 表面에 내세웠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西方指導者들에 대한 不信感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資本主義 世界와 社會主義 世界 사이에는 근본적인 敵對感이 존재하고 있다는 恨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 점은 1944년 6월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 指導者인 질라스(Milovan Djilas)와의 對話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질라스에게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英國人의 同盟者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처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同盟者를 속이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1차 世界大戰 중에 그들은 러시아인들과 프랑스인들을 끊임없이 속였습니다. 처질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질은 만일 당신이 그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잎을 빼내어 갈 종류의 사람입니다. [……] 루즈벨트요? 루즈벨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돈이 들어 있을 때만 손을 집어 넣습니다. (6)

다시 질라스에 의하면, 그날 저녁 蘇聯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世界地圖 위로 손을 흔들면서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처칠과 루즈벨트)은 이렇게 큰 空間이 붉어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말이지요!』(7)

(6)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 73-74. Rosser, *An Introduction to Soviet Foreign Policy*, p. 203에서 다시 옮김.

(7) *Ibid.* (Rosser)에서 다시 옮김.



## 美國과 英國의 戰略

스탈린과는 대조적으로, 루즈벨트大統領의 중심적 關心은 戰爭을 가능한 빨리 勝利로 이끄는 데 있었다. 바꿔 말해, 군사적 勝利를 일차적으로 확보한 다음 정치적 問題를 협상한다는 立場이었다. 이 接近法은 戰爭과 平和가 國際政治의 커다란 演劇에서 두 개의 독립적 시나리오라는 美國의 전통적 態度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戰爭이 일어나면 모든 에너지를 戰鬥에 쏟을 뿐,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未來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態度였다. 물론 루즈벨트大統領은 헐(Cordell Hull) 國務長官과 國務省으로 하여금 앞으로 올 世界에 대한 예비적 構想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構想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국제적 集團安保體制(戰後의 國際聯合)와 그리고 殖民地 人民에 대한 국제적 信託統治에 焦點을 두고 있었다. 「勢力圈」또는 「領土 割讓」은 權力政治의 악랄한 考案이고 戰爭의 源泉이며 民族自決의 신성한 權利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民族自決權은 1941년 8월 루즈벨트와 처칠에 의해 채택된 戰爭目標의 宣言文인 大西洋憲章에 보장되어 있다). 불행히도, 그러한 構想들은 스탈린의 關心을 끈 安保案이었다.

루즈벨트大統領은 자신이 스탈린의 要求들을 연기시키거나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戰時中의 표면적인 和合이 戰後의 平和時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戰後에는 狀況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한 補佐官들이 있었으나 그는 그러한 見解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大聯合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國際體制를 통해 蘇聯의 安保的 要求는 충족될 수 있으며, 美國과 英國은 자신들이 戰時에서와 마찬가지로 平和時에서도 蘇聯의 同盟이 될 것이라는 점을 蘇聯에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蘇聯에게 美國과 英國이 그의 「진정한 親舊」임을 보여주기 위해 東歐에서 蘇聯을 견제하려는 意圖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軍事 戰略을 美國과 英國은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스탈린으로 하여금 蘇聯의 戰後安全을 염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루즈벨트大統領은 共產主義者와 共產主義에 대한 상당한 無知의 포로였다. 물론 그는 그 선량한 「영클 조」("Uncle Joe") 스탈린이 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相對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일 西歐가 善意와 忍耐와 寬容을 보인다면 스탈린과 蘇聯人은 態度를 달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처칠의 判斷은 달랐다. 그는 처음에는 西歐와 蘇聯 사이의 未來의 關係에 대한 루즈벨트의 낙관적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칠은 아시아의 支配權을 둘러싼 英國과 러시아 사이의 數世紀의 鬭爭.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의 英·蘇간의 수십년의 葛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의 맹렬한 反共主義의 記錄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에 대한 蘇聯의 抵抗이 戰爭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英國의 生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스탈린의 영토적 要求에 대한 루즈벨트의 讓步에 대해 묵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처칠은 大英帝國의 利益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蘇聯은 帝政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힘으로써 견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처칠은 軍事戰略의 정치적 意味를 루즈벨트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 IV. 커다란 戰略的 決定들

정치적 爭點들을 자세히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른 問題가 있다. 政治協商에 깊은 影響을 준 軍事戰略의 큰 問題가 바로 그것이다. 戰爭이 어떻게 수행되었느냐의 問題는 戰後의 世界가 어떻게 구축되었느냐의 問題에 불가피하게 커다란 影響을 주었기 때문이다.

##### 第2의 戰線

聯合國의 가장 큰 關心은 蘇聯을 戰爭에 계속 개입시키는 問題였다. 武器 貸與法에 따른 美國의 對蘇支援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獨逸 陸軍의 兵力 가운데 4분의 3을 對蘇戰線(東部戰線)에 쏟아 넣고 있었던 만큼 蘇聯에 대한 군사적 壓力은 경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제로 스탈린은 1941년 7월 처칠에게 北部 프랑스와 挪웨이에서 제2의 戰線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처칠은 英國에 의한 대규모 攻擊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1942년 1월 1일 美國과 英國 및 蘇聯의 代表들은 最後의 勝利가 획득될 때까지 各者가 鬭爭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는 「國際聯合宣言」을 워싱턴에서 서명했다. 이와 동시에 스탈린은 美國과 英國에게 유럽 本土에 「제2의 戰線」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해 봄 獨逸의 對蘇攻擊이 재개

되자 스탈린의 要求는 더욱 강해졌다. 美·英이 「제 2의 戰線」, 곧 西部戰線을 구축해 주지 않는다면 獨逸軍의 總攻擊 앞에서 東部戰線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美國의 反應이 미온적으로 나타나자, 스탈린은 1942년 5월 몰로토프外相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여 루즈벨트大統領에게 직접 호소하게 하였다. 이러한 呼訴에 대해서도, 陸軍大將 마샬(George C. Marshall)과 海軍提督 킹(Ernest J. King)은 주저하는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몰로토프에게 『蘇聯은 그 해 말까지는 제 2의 戰線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을 스탈린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美·蘇 共同聲明도 『對話의 過程에서, 1942년에 유럽에 제 2의 戰線을 구축하는 시급한 課題에 關係 충분한 諒解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歸路에 몰로토프는 英國에서 英·蘇간의 20年間 同盟協定에 조인했다. 몰로토프의 外遊는 完전한 成功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프라우다』는 敵이 1942년 안으로 완전히 滅亡될 것이라는 記事나 論說을 내보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제 2의 戰線案에 대해 英國과 아무런 相議를 하지 않은 處地였다. 그러므로 英國은 제 2의 戰線 구상이 알려지자 異議를 제기했다. 英國은 도버 해협을 건너 유럽 本土에 착륙할 戰艦이 부족했었다. 따라서 처칠은 몰로토프에게 英國은 1942년에는 제 2의 戰線을 약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처칠은 이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스탈린에게 왜 유럽 本土에 대한 攻擊이 개시될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처칠의 進言적인 說得力도 스탈린 앞에서는 所用이 없었다. 스탈린은 어째서 英國이 그처럼 獨逸을 두려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프랑스에 進攻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모험적인 것이라는 점은 시인했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1942년 말 北아프리카에 進攻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스탈린은 어느 정도 풀어졌다. 이로써 大聯合은 구체되었으며 스탈린도 그 決定이 옳다는 것을 內心으로는 믿을 것이라고 처칠은 생각했다.

1942년 11월 美·英 合同軍은 北阿에 대한 攻擊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蘇聯軍에 대한 獨逸軍의 壓力을 덜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아프리카로부터 獨逸軍의 掃蕩이 늦어짐에 따라 美·英 合同軍이 도버해협을 건너 프랑스 本土로 進攻하는 計劃이 1943년에도 집행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1943년에 이탈리아에 대한 進攻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가 軸國同盟으

로부터 이탈한 것이 蘇聯에게는 약간의 慰勞가 되었다.<sup>(8)</sup>

제 2의 戰線에 대한 스탈린의 壓力은 계속되었다. 蘇聯에 대한 진정한 救援은 美·英의 유럽 本土에 대한 攻擊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스탈린은 주장했다. 그러나 그 攻擊은 다시 한 해나 연기되었다. 이제 大聯合의 緊張은 높아졌다. 스탈린은 西歐 내부적 指導者들이 고의적으로 約束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처칠은 격노하여 反駁文을 보내기도 하였다. 제 2의 戰線은 1944년 6월에야 비로소 구축된다. 원래 루즈벨트는 蘇聯의 영토적 要求를 완화하기 위해 몰로토프에게 1942년 중에 유럽 本土를 진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 約束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蘇聯의 정치적 要求에 대한 聯合國의 抵抗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西方의 군사적 脆弱性은 西方의 寬容을 낳았던 것이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의 欲求에 점차 동정적이 되었다. 만일 그러한 寬容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스탈린의 西方에 대한 不信은 더욱 커졌을 것이며, 이것은 蘇聯으로 하여금 제 2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條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즉 蘇聯은 獨逸과의 단독 平和協定을 체결했을 것이며, 이것은 유럽의 運命에 무서운 結果를 낳았을 것이다.

### 無條件降服

獨逸과의 單獨講和案은 사실 蘇聯과 美·英 양 쪽을 모두 괴롭힌 亡靈이었다. 蘇聯은 美·英이 자신을 희생시킨채 獨逸과 單獨講和에 조인할 것을 두려워 했고, 美·英은 그 反對의 경우를 경계했다. 蘇聯의 경우에는 자신이 獨逸軍의 進攻에 압도되던 時期에 그러한 두려움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1943년 여름 赤軍이 東歐에서 戰勢를 역전시킨 이후에야 스탈린은 비로소 安堵의 숨을 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美國과 英國은 스탈린을 안심시킴으로써 그가 나찌에게 다시 提携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獨逸에게 「無條件 降服」을 요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1943년 1월 카사블랑카에서의 記者會見을 통해 獨逸의 「無條件 降服」만으로써 大戰은 종결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스탈린은 美·英 首腦의 이러한 강경한 語調로 보아 大聯合은 最後까지 지

(8)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 153.

속될 것임을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降服에 대한 몇 가지 條件들이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獨逸 國民은 히틀러 아래 일치단결해 最後의 暖間까지 싸우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無條件降服案이 蘇聯의 膨脹政策에 얼마나 큰 利益을 갖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지 않다. 終戰時에 蘇聯軍隊는 유럽의 中心部에 깊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獨逸의 無條件降服은 蘇軍의 駐屯을 사실상 合法化하게 되고 그 地域에 대한 蘇聯의 支配를 既定事實化했던 것이다.

### 太平洋에 있어서의 蘇聯援助의 必要性

蘇聯의 정치적 目的에 影響을 미친 세번째의 커다란 군사적 決定은 對日戰에 蘇聯軍을 개입시키려는 美國의 決定이었다. 1941년 봄 蘇聯과 日本은 蘇聯의 利益에 완전히 일치하는 中立協定에 조인했었다. 그 協定은 獨逸이 蘇聯을 공격하는 경우 日本이 시베리아를 침공할 수 있는 可能性을 방제한 것이었다. 반면에 日本은 北方으로부터의 攻撃의 危險性으로부터 벗어난 채 南進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日本이 자신의 帝國을 추구함에 있어서 美國과 충돌해도 蘇聯은 日本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이 協定은 示唆하고 있었다. 실제로 戰爭이 두 나라에게 닥쳤을 때, 이 協定의 有效性은 확인되었다. 두 나라는 각각 자신의 전통적인 競爭者의 弱點을 이용하지 않고 잠정적인 休戰을 지켰던 것이다.

美國은 이것이 不滿이었다. 바꿔 말해, 美國은 蘇聯이 아시아에서 제 2의 戰線을 구축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蘇聯은 자신이 유럽 戰爭에 몰입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美國은 蘇聯이 美軍에 대한 日本의 壓力을 덜어 줄 것을 원했으며, 이에 따라 蘇聯을 對日戰에 끌어들이기 위해 스탈린에게 많은 讓步를 약속하게 되었다. 蘇聯이 對日戰에 참가하는 代價로서 帝政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地域의 領土를 어떻게 다시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 V. 蘇聯이 帝國을 얻다

위에서 살핀 戰略的 軍事決定은 확실히 스탈린이 帝政러시아의 前領土의 대부분을 다시 얻고 러시아의 支配 아래 놓여 본 일이 없었던 地域으로까지

蘇聯의 효과적인 統治를 연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음에서 蘇聯이 어떻게 자신이 版圖를 넓혀 갔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 폴란드

폴란드는 유럽에 있어서 스탈린의 중심적 關心의 對象이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인 스스로는 물론 西方도 과연 스탈린이 폴란드의 將來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戰時 聯合國會談의 初期에 있어서는 蘇聯이 1939년 나치의 폴란드 攻擊時에 분할해 차지한 東폴란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가에 西方의 關心이 쏠렸다. 그러나 後期에 와서는 戰後의 폴란드政府가 가질 性格이 論議의 焦點이 되었다.

獨逸의 蘇聯攻擊 직후 스탈린은 런던에 있는 폴란드 亡命政府를 마침내 승인했다(스탈린은 폴란드가 1939년 분할되었을 때 이 政府를 조소에 부쳤다). 承認合意에서 蘇聯은 蘇聯에 포로로 잡혀 있는 25만명의 폴란드 將兵들을 석방해 폴란드軍을 조직하게 하며, 蘇聯의 強制收容所에 갇혀 있는 1백 20만명의 폴란드 市民을 석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協定을 교섭한 駐英 蘇聯大使 마이스키는 東폴란드가 蘇聯에 계속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理由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인종적으로 東폴란드는 러시아에 속한다. 둘째, 英國은 커즌 라인으로써 1920년에 이 사실을 승인했었다. 셋째, 獨逸의 攻擊은 이 地域이 蘇聯의 防禦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었다.

蘇聯의 이러한 主張에 대해, 폴란드首相 시코르스키(Wladyslaw Sikorski) 將軍은 강경하게 맞섰다. 폴란드는 1921년 현재의 國境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英國의 調整아래, 이 問題를 덮어둔 채 承認合意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合意文은 領土變更을 규정한 1939년의 獨蘇協定이 『그 有效性을 상실했다』고만 선언함에 그쳤다. 그러나 『프라우더』는 1941년 8월 3일 폴란드의 1921년 國境에 不變의 것은 없다고 선언하고, 그것은 「將來의 問題」라고 선언했다.

1941년 12월 시코르스키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을 때, 獨逸軍의 先發隊들은 모스크바 郊外에 와 있었다. 狀況이 이러한에도, 스탈린은 國境 問題를 다시 끌어내었다. 그는 蘇聯이 1939년 이전의 國境에서 「약간의」 變更을 추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시코르스키는 이 問題의 論議를 거부했다.

시코르스키의 判斷으로 보건대, 蘇聯의 安全은 극도로 위태로왔다. 이러한 蘇聯에게 祖國의 「領土割讓」에 동의해야 할 理由를 그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英國外相 이든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스탈린은 이든에게 蘇聯이 獨逸의 蘇聯侵攻時의 자신의 모든 領土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을 文書로써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스탈린은 그 問題가 懸案인 英·蘇協定에 대한 秘密議定書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이러한 解決이 蘇聯의 安保의 必要와 蘇聯의 戰爭損失에 미루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스탈린은 루마니아에 있어서의 空軍基地, 핀란드에 있어서의 海·空軍基地, 獨逸의 東프러시아의 一部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탈린의 그러한 要求들이 大西洋憲章의 精神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거절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大西洋憲章이 柚軸國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蘇聯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로써 반박했다. 이든은 스탈린을 가라 앉히기 위해 스탈린의 主張들이 부당하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그 모든 問題들에 대해 英國은 美國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폴란드와 蘇聯의 커다란 衝突은 1943년에 일어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탈린은 蘇聯의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폴란드將兵들을 석방하여 폴란드軍을 형성한다는 점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蘇聯軍의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폴란드將校의 數는 너무나 적었다. 그런데도 蘇聯政府는 약 8천명의將校가 실종된 데 대해 아무런 說明을 제공하지 않았다. 1943년 4월 13일 獨逸放送은 폭탄적인 뉴스를 전했다. 약 1만명의 폴란드將校의 屍體가 獨逸이 점령한 蘇聯의 한 市 스몰렌스크(Smolensk)의 郊外인 카틴 포리스트(Katyn Forest)의 큰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獨逸은 이들이 「유대 불세비키의 野獸性」의 犠牲者들이라고 주장했다.

사흘 뒤 폴란드 亡命政府는 國際赤十字社에게 이 問題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월 25일 스탈린은 폴란드와의 外交關係를 단절하는 것으로써 폴란드亡命政府에 대답했다. 폴란드亡命政府는 蘇聯에게 「배신적 打擊」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폴란드亡命政府는 蘇聯政府가 論評할 機會도 주지 않은채 獨逸파시스트들의 謀略運動에 편승했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발견된 屍體들이 獨逸軍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및 리투아니아로부터 영토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 事件을 악

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확실히 폴란드亡命政府는 眞相이야 어떻든 이 目的을 위해 나찌와 제휴하고 있었다.<sup>(9)</sup>

西歐 同盟國家들은 폴란드亡命政府가 大聯合을 깨뜨리고 있다고 보고 不滿을 표시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스탈린에게 폴란드와의 論爭보다도 히틀러와의 戰鬪에 全力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폴란드 亡命政府에 대해 보다 적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한편 폴란드亡命政府로서는 虐殺의 眞相을 추구하는 作業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失蹤者의 數는 폴란드軍 將校團의 45% 가까이 이르는 것이었다. 軍에 종사하던 많은 知識人들도 실종되었다. 애초에 폴란드亡命政府는 이 모든 일이 끔찍스런 나찌 宣傳의 造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뒷날 그들은 1940년 봄 蘇聯 秘密警察(NKVD)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중에 약 4천 5백구의 시체는 발굴되었으나 1만여명의 將兵의 運命은 이제껏 밝혀지지 않고 있다.

蘇聯과 폴란드亡命政府의 關係가 지극히 惡化된 狀況에서 폴란드의 運命은 聯合國 首腦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테헤란會談에서 치킬은 루즈벨트의 默認아래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은 提議를 했다. 첫째, 폴란드가 東폴란드를 蘇聯에 내어주는 대신에 폴란드에게는 그 西쪽에서 獨逸領土의 一部를 떼어준다는 것; 둘째, 만일 장차 獨逸이 폴란드에게 잃은 領土를 다시 얻고자 할 때에는 폴란드는 蘇聯에게 保護를 요청한다는 것; 셋째, 폴란드는 東歐의 國際關係에서 중립적 役割을 수행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 마디로 말해, 聯合國은 폴란드를 蘇聯의 포로로 만들고자 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이 公式을 수락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의 폴란드亡命政府가 「反蘇分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政府와 어느 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41년 1월 赤軍은 폴란드에 進入했다. 이와 더불어, 蘇聯政府가 폴란드共產主義者들과 그 同調者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民族解放委員會」(“Committee of National Liberation”)가 폴란드의 行政을 장악했다.<sup>(10)</sup> 이

(9) 폴란드亡命政府는 親나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構成員들의 대부분은 맹렬한 反蘇·反共의 性向을 갖고 있었다.

(10) 蘇聯은 카틴報道 數週前에 폴란드 愛國者同盟(The Union of Polish Patriots)을 구성했었다. 親蘇 폴란드 인사들로 장차의 親蘇 폴란드政府의 核心이 될 政治組織을 만들었던 것이다. 民族解放委員會는 이 組織의 後身으로서, 루블린政府(the Lublin government)라고 불린다. 民族解放委員會가 루블린을 폴란드의 臨時首都로 지정했었기 때문이다.



에 따라 처칠과 루즈벨트는 런던政府의 영향력을 구출해 주기 위한 마지막 努力을 기울였다. 그들은 미콜라이크지크(Stanislaw Mikolajczyk) 首相——시코르스키首相이 1943년 비행기 충돌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가 後任이 되었다——이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과 담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미콜라이크지크에게 聯合國은 폴란드를 위해 蘇聯과 싸울 用意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은 미콜라이크지크首相에게 자신은 커즌·라인을 수락한 폴란드政府하고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民族解放委員會와 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일 런던의 폴란드亡命政府가 폴란드의 統治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民族解放委員會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스탈린은 암시했다. 이에 따라 미콜라이크지크首相은 民族解放委員會 代表들과 만났다. 會談은 곧 깨어졌다. 委員會는 亡命政府와의 聯合政府에서 18개 閣僚職 가운데 14席을 차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를 미콜라이크지크首相은 거부한 것이다.

蘇聯—폴란드關係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비극적 事件이 이때 발생했다. 미콜라이크지크首相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44년 8월 1일 오후 5시, 폴란드亡命政府의 支配下에 있는 3만 5천여명의 폴란드 地下軍隊가 바르샤바에서 獨逸軍을 상대로 봉기했다. 그들은 이미 蘇聯軍이 바르샤바 近郊를 맹렬히 포격하고 있음에 비추어 獨逸軍의 바르샤바 撤收가 임박했다고 보고, 赤軍이 入城하기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 바르샤바를 해방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蜂起는 기본적으로 蘇聯에 대한 정치적 策略이었다. 이것을 蘇聯이 모를 리가 없었다. 따라서 蘇聯은, 獨逸이 5개의 機甲師團을 급파하여 數日分의 補給品 밖에는 갖고 있지 못한 地下軍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態度를 취했다. 미콜라이크지크首相의 支援呼訴에 대해서도, 또 美·英의 支援構想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탈린은 폴란드亡命政府의 「冒險主義」를 입증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信賴를 저하시키고자 하였고, 反蘇的 武裝勢力의 대부분이 醜惡되는 것을 환영하였던 것이다.

1944년 10월 처칠과 스탈린 및 미콜라이크지크 3자 사이의 會談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처칠과 스탈린은 폴란드首相에게 폴란드 國境에 관해 테헤란에서 내려진 聯合國 首腦의 合意 內容을 설명했다. 미콜라이크지크는 런

던에 있는 자신의 同僚들에게 설득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폴란드亡命政府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1944년 12월 31일 民族解放委員會는 자신을 臨時政府라고 선언했으며, 蘇聯은 이에 대해 즉시 承認을 부여했다.

1945년 2월의 얄타會談에서 폴란드「頭痛」은 다시 상당한 時間을 소비하게 하였다. 그것은 8차에 걸린 會議 가운데 7회의 會議에서 논의되었다. 처칠과 루즈벨트는 이 골치 아픈 問題에 실증을 내게 되었으며, 마침내 커존·라인에 동의했다.

루즈벨트는 처음에는 커존·라인의 東쪽에 위치한 르보프(Lvov)시를 새로 만들어지는 폴란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 讓步를 얻어냄으로써 그는 美國의 6백만 내지 7백만의 폴란드인을 위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이 커존·라인에서의 이러한 變更을 허용하는 경우 자신은 蘇聯 國民을 대할 낯이 없다고 그는 능청을 떨었던 것이다. 이처럼 西歐의 要求가 모두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西部 國境線의 劃定은 蘇聯의 過欲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었다. 스탈린은 이제 폴란드에 대한 蘇聯의 支配가 확실해지자 폴란드인들을 전통적으로 獨逸 領土였던 곳으로 몰아 넣고자 한 것이다.

폴란드에 관한 마지막 問題는 누가 이 새로운 폴란드를 통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처칠과 루즈벨트는 스탈린이 당시의 현존하는 5개 폴란드政黨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臨時政府를 구성하고 그 臨時政府의 主導아래 가능한 한 빨리 自由總選을 실시하는 方向으로 나가줄 것을 기대했다. 西方이 폴란드 國境에 관한 蘇聯의 要求를 그대로 들어준 만큼 이 問題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西方의 要求를 수락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選舉가 1개월 이내에 열리게 되어 있다는 점만을 반복하였다. 그 뿐 아니라 현재의 臨時政府를 「광범한 민주적 基礎」 위에서 개편한다는 데 대해 美·英의 同意를 받아냈다. 美·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런던亡命政府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으며, 너무 反蘇的이었고, 불가능한 未來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西歐의 指導者들은 자신들의 政策의 궁극적 結果——즉 獨立폴란드의 죽음을 보다 명백히 내다 보았어야 했을 것이다.

#### 핀란드와 발틱 國家들

폴란드問題 앞에서 그 重要性이 감소되어 버린 東歐에 있어서의 다른 領土

問題들이 있다. 우리는 1941년 12월 이든外相의 모스크바 訪問 당시 스탈린이 핀란드와 발틱 3국의 未來에 관한 蘇聯의 慾心을 표시했으며 이들은 이의 論議를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처칠은 정말 그들의 蘇聯으로의 강제적 編入에 대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반대했다. 따라서 이든이 스탈린과 만난 바로 그 달에, 처칠은 루즈벨트와 만나 자신은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들이 共產主義로 넘겨지는 決定의 參加者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2년에는 처칠의 입장도 달라졌다. 그는 발틱 國家들을 위해 英國의 未來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루즈벨트에게 발틱 國家들에 대한 스탈린의 要求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즈벨트 역시 처칠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념적인 입장에서 발틱 國家들의 蘇聯으로의 編入에 반대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그러한 決定이 美國內의 발틱 3개국 출신 有權者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발틱 3국의 運命을 발틱 3국의 國民投票로써 결정하자는 提議를 내놓았다. 그러나 蘇聯은 이를 거부했다.

1942년 5월 루즈벨트가 그 해 안에 美·英이 제 2의 전선을 구축할 것임을 蘇聯에게 약속하고 나서는 발틱 國家의 問題에 대해서는 擧論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3년에 들어 오면서 英國은 戰後의 정치적 問題 전반에 관해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해 3월 루즈벨트와의 회담에서 이든外相은 발틱 問題를 다시 거론하였으며, 두 사람은 발틱 國家들에 대한 蘇聯의 要求에 양보한다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決定에 따라, 발틱 3국은 마침내 「西方으로부터의 호느낌조차 받지 못한 채」 蘇聯에 편입되고 말았다.

蘇聯은 1947년에 서명된 平和協定에서 핀란드로부터 자신의 안보상의 必要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핀란드는 蘇聯에 대항하기 위해 獨逸과 제휴한 바 있다). 國境은 1940년의 「겨울 戰爭」 이후 확정되었던 그것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다만 北部의 전략적인 페트사모(Petsamo) 地域이 蘇聯 領土로 편입되었으며, 핀란드의 발틱海岸에 새로운 蘇聯의 海軍基地가 세워졌다. 핀란드의 運命은 이보다 더욱 가혹해질 수 있었다. 즉 蘇聯은 핀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共產化할 수 있었다. 그러나 蘇聯은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다. 蘇聯은 反蘇性向이 높은 핀란드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삼켜 소화하기에는 힘든 억센 사람들이라는 것과, 만일 핀란드가 共產化하는 경우

그것은 스웨덴으로 하여금 西方에 밀착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蘇聯은 핀란드에게 명목적인 獨立을 허용하였다.

### 발칸地域

발칸地域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처칠은 발칸地域에 있어서의 蘇聯의 膨脹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1943년 11월의 테헤란會談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에게 아드리아海를 통과해 유럽 본토에 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역설했다(처칠은 그 이후 자신의 이 提議가 순전히 군사적 目標의 達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美·英은 1944년중에 도버 해협을 건너 유럽 본토에 진공해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앞서서 獨逸軍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러한 군사적 行動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다).

美國의 軍事指導者들은 처칠의 意圖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처칠이 英國의 전통적인 「地中海 野心」(“Mediterranean ambitions”) 때문에 해협횡단 進攻計劃(그 暗號名은 大君主라는 뜻의 Overlord였다)을 파괴시키고자 그러한 提議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루즈벨트는 어느 構想도 「大君主」案의 성공적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써 그에 반대했다. 美國의 反對를 스탈린은 물론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美·英이 프랑스에 진공해 들어올 때에만 蘇聯軍에 대한 獨逸軍의 壓力은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스탈린은 물론 처칠의 提議가 발칸地域에서의 蘇聯의 野心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蘇聯學者가 쓴 『제2차 世界大戰』은 처칠이 東南유럽에서 英國의 支配를 수립하고 反蘇線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目的에서 그 같은 構想을 내놓았다고 비난하고 있다).<sup>(11)</sup>

1944년에는 발칸地域에 대한 처칠의 憂慮는 보다 뚜렷해졌다. 그는 발칸의 全地域이 蘇聯軍의 進攻에 따라 共產化될 것을 두려워했다. 더구나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兩國에서는 共產 빨치산과 非共產 빨치산 사이의 對決이 內亂으로 확대될 危險性이 증대되고 있었다. 만일 內亂이 발생하는 경우 蘇聯은 共產 빨치산을 지원할 것이고 美·英은 非共產 빨치산을 지원할 것이 확실하다고 처칠은 판단했다. 따라서 처칠은 그러한 破局을 예방할 수 있는 정치적 調整案을 찾고자 하였다. 처칠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있어서의

(11) G. Deborin, *The Second World War* (Moscow: Progress Publishers, n. d.), p. 287. Rosser, *Introduction to Soviet Foreign Policy*, p. 214에서 다시 옮김.

蘇聯의 支配를 既定事實로서 묵인할 用意이 있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 있어서의 蘇聯의 支配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英國과 蘇聯이 中國적인 平和會議이 열릴 때까지 발칸地域의 「管理」(“management”)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칠의 이러한 主張은 루즈벨트에게는 勢力圈의 形成을 연상시켰다. 그러므로 그는 그 提議에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戰中이건 戰後이건 美國은 발칸地域에 아무런 慾心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칠은 1944년 10월 모스크바 訪問時 스탈린에게 발틱問題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처칠은 스탈린에게 루마니아에 있어서의 蘇聯의 90% 「優勢」(“predominance”)와 불가리아에 있어서의 蘇聯의 75% 「優勢」를 제의했다. 그 대신 英國은 美國과 더불어 그리스에 있어서의 90% 「優勢」를 차지하고,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 있어서는 50% 對 50%의 비율로 蘇聯과 支配의 몫을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여기서 「優勢」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어떤 形態의 政府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言及이 없었다. 스탈린은 이 地域에 대해 자신이 어떤 構想을 갖고 있는지 아무런 示唆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처칠의 提議를 이해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자신들의 諒解를 공동명의로 루즈벨트에게 알렸다. 루즈벨트는 이를 받아들였다.

1944년 12월 그리스에서 內亂이 일어났다. 英國軍은 共產계 匪徒를 진압했다. 그러나 蘇聯의 매스미디어는 한 마디의 抗議도 나타내지 않았다.<sup>(12)</sup> 그 대신 스탈린은 蘇聯에게 「優勢」가 약속된 地域에서는 比率에 관계없이 완전한 支配를 확보했다.\*

(12) 처칠과의 合意에 관계없이, 스탈린은 그리스 共產主義者들의 行動을 時間浪費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1944년 中엽, 그리스駐在 蘇聯軍事使節團은 그리스의 共產主義者들이 烏合之卒로서 支援의 價値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Ibid.*, p. 215의 脚註 15.

\*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